

영어강의 교과목에 대한 인터뷰 조사

현재 우리 학교에서는 전체 강의의 6% 정도를 영어로 진행하고 있다. 이 중 기초교육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어강의 교과목은 일반교양 영역에 속하는 과목으로서 외국에서 온 교환학생과 방문학생들에게 한국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개설되었다. 이번 기획기사에서는 현재 우리 학교에서 시행중인 영어강의 교과목의 현황을 점검하는 의미에서 영어강의에 대한 교수와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제한된 강좌에 대한 지적

2005년도의 경우 총 20개(1학기 8개, 계절 학기 1개, 2학기 11개 강좌), 이번 2006. 2학기에는 총 7개의 영어강의 교과목이 개설되었다.

영어강의 교과목을 수강한 교환·방문학생들은 대체로 강의 선택의 폭이 좁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여름 계절 학기를 이용해 우리 학교를 방문한 한준희(Cornell University)씨의 말을 들어 보자.

“교환·방문학생의 경우 영어강의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대학교는 제공하는 영어강의 교과목의 수가 너무 적어서 아쉬웠습니다. 강의 수가 적다 보니 강의 시간표를 중심으로 강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름 방학을 이용해 우리 학교에서 영어강의를 수강한 방문 학생 김은주(Rhode Island School of Design)씨는 영어강의 교과목이 다루고 있는 주제들 또한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하였다.



“보다 여러 학과에서 영어강의 교과목을 개설해 강의 선택의 폭을 넓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과목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리핀에서 온 교환학생으로 지난 1학기에 우리 학교에서 공부한 Marian Gongora(University of Santo Tomas)씨는 영어강의 교과목 운영에 있어서 보다 세심한 조정과 배려가 필요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개설된 영어강의 교과목들과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언어 강좌들 간에 강의시간이 겹치는 경우가 발생해서 선택의 폭이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수준의 강좌 필요

현재 우리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영어강의 교과목은 교양과목 수준에서 한국의 특수성을 소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난 학기에 ‘A Survey of Korean Literature’를 강의했던 봉준수 교수(영어영문학과)는 한국에 대한 사전 지식이 거의 없는 교환·방문학생들에게 이러한 커리큘럼은 지나치게 낯설거나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강좌들을 보다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본적인 역사적 시각을 다루는 강좌가 필요합니다. 수강생들이 어느 정도의 역사적 시각과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국적 특수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를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커리큘럼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Cultural and Social Transformation of Contemporary Korea’라는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신의항 교수(기초교육원 초빙 교수)는 교환·방문학생들 뿐만 아니라 재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영어강의 커리큘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어강의 교과목은 외국에서 온 교환·방문학생들 뿐만 아니라 재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한국 밖에서 출판된 한국에 관한 문헌을 학생들에게 널리 소개함으로써 외부인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의 현상을 분석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커리큘럼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교수법 개발 시급

신의항 교수는 영어강의로의 전환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영어강의 교과목 시스템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현재 교수들과 학생들이 갖고 있는 영어강의 교과목에 대한 인식이 보다 발전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영어 강의의 비중을 점차 높여가는 과정에서 영어강의로의 전환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학교 측의 적극적인 프로그램 마련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봉준수 교수는 학교 측과 담당 교수들 간의 원활한 정보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어강의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들은 교수법 상의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담당 교수들에게 수강생들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 교환·방문 학생들의 수준과 그들이 원하는 수업 내용을 학교 측에서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그런 정보가 담당 교수에게 가급적이면 일찍 주어져야 합니다.”

최근 영어강의 교과목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영어강의 교과목을 수강하는 교환·방문 학생들 및 재학생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다양한 내용의 커리큘럼을 마련하고, 동시에 이를 담당하는 교수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